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	계 수 나 무	발행인 : 백종철 교장선생님 편 집 : 4학년
경기도 시흥시 계수로 203 ☎ 070-797-1973 <a href="http://gyesu-cho.es.kr">http://gyesu-cho.es.kr</a>		

## 1학기 문화예술체험활동 발표회

지난 7월 14일 5~6교시에 계수초 다목적실에서 4~6학년이 모여 문화예술 발표회를 가졌다. 문화예술 발표회는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수업을 한 학기동안 배운 것을 전교생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첫 번째는 목공팀이었다. 목공선생님이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을 하시고,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하셨다.

두 번째팀은 일렉밴드 팀이었다. 역시 밴드는 드럼, 기타, 피아노 등등 악기들이 많았다. 일렉밴드의 보컬은 5학년 우다현 학생과 박준영 학생이었다. 일렉밴드는 '들었다 났나'라는 노래를 발표하였다. 일렉밴드의 공연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3번째 팀은 4학년의 '엘로우 스쿨'이었다. '엘로우 스쿨'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막을 열었다. 무대 경험이 없는 4학년 학생들은 하는 도중 많은 실수를 하였다. 그래도 무사히 막을 내렸다.

마지막 팀은 5~6학년의 뮤지컬 '분홍병사'가 막을 올렸다. 역시 무대경험이 많은 5,6학년이었다.

분홍병사도 막을 내린 후 간식을 먹으며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며 문화예술 발표회를 마쳤다.

1~3학년 역시 7월 17일에 수공예와 습식수채화를 1학년 교실 앞에서 전시하였다. 1학년은 습식수채화와 목도리를 만들고 2학년은 가방을 만들고, 3학년은 그물(?)을 만들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전시물을 보고 칭찬을 하였다.

목공을 한 류덕무 학생은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지만 특별히 재미있었던 것은 나무껍질 베끼기라고 한다. 그리고 유기영 선생님은 여러 친구들이 힘든 작업이 있었는데도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과 작품에 만족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기 좋고 특히 장난끼 많은 4학년 친구들이 대견했다고 이야기 해주셨다. 그리고 일렉밴드의 김겨레학생은 뮤지컬보다 밴드가 망하지 않아서 우리는 좀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또 엘로우스쿨에서 엘로우 샘 역할을 맡은 심유진 학생은 대사가 많

아서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분홍병사에서 분홍병사역을 맡은 5학년 김수현 학생은 대사가 많이 없어서 좋았고 의상이 더웠다고 한다. 그리고 4~6학년 문화예술발표회를 관람한 3학년 이현숙 선생님께서 하는 도중 힘들어 하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창의적인 작품이 나와서 재미있었다고 한다. 1학년 김지민 학생은 분홍병사가 재미있었는데 뮤지컬에서 김지유 학생이 이정훈 학생의 빨간 마스크를 벗기는 게 재미있었다고 한다.

김시온 기자, 박지원 기자



목공 전시



뮤지컬 엘로우 스쿨



뮤지컬 분홍 병사



일렉 밴드

## 계수초 야영

2015년 야영은 5월 말에 하려고 했으나 메르스로 인해 연기되었다. 그리고 또 장마 예고로 24~25일에 하려던 것을 28~29일로 연기하게 되었다.

야영 프로그램은 모듬끼리 텐트를 설치하고, 설영식, 부스게임, 조별 저녁 준비, 퀴즈대회,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캠프파이어, 미션 수행, 세면, 기상, 조별 아침 준비, 철영과 폐영식 순서로 진행된다. 혹 변경된 날씨에도 비가 올 시에는 실내행사로 진행하고, 둘째날은 아침을 먹고 1학기 마지막 4교시 수업을 마치고 끝나게 된다. 재미있고 안전한 야영이 진행되면 좋겠다.

이울 기자

## 1학기 다모임을 마치고

우리 계수초등학교는 1학기동안 다모임을 하였다. 1학기 다모임이 끝나고 진행자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았다.

시현: 다모임이 왜 중요할까요?

지유 :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에 반영되어서이다.

소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현: 다모임으로 인해 좋았던 점과 잘된점,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지유: 좋았던 점은 학교 일들이 다모임에서 정해진 것이다. 아쉬운 점은 규칙을 안지킨 것이다.

소은: 건의사항으로 공을 꺼낸 것이다. 거의 모든 의견이 실행되었던 것이 좋았다. 아쉬운 점은 떠들고 말을 안들었다.

김시현 기자



다모임 장면



모듬 회의 모습

## 동아리 소식

우리 계수초등학교는 동아리 활동을 3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4학년의 김시온과 박지원 학생은 '손재주'라는 동아리를 열어 지금까지 즐거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아리를 만든 박지원 학생과 김시온 학생에게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물어보았다. 박지원 학생은 재미있게 활동했다고 하였고, 김시온 학생은 처음 동아리를 해봤는데 할 게 너무 없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았는데 재미있었다고 했다. 그 다음은 이 손재주 동아리에 참여한 친구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4학년 박시연 학생은 좋았다고 했다. 4학년 류덕무 학생은 쉽고 간편해서 좋았다고 했다. 4학년이 여는 재미있는 손재주 동아리 앞으로도 더 오래 가고 재미있는 것을 하길 바란다.

그 다음은 5학년의 '병아리 키우기'를 알아보았다. 그때의 병아리는 많이 커서 이제는 닭이 되었다. 정성껏 돌봐주고 밥주고 먹이주고 5학년 학생들이 참 많은 정성으로 병아리를 돌본 것 같다. 동아리를 만든 5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물어보았다. 5학년 박준영 학생은 점점 동아리가 망해가고 있다고 얘기했다.

우리 계수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것을 나누고 많은 것을 알고 앞으로도 계속 가길 바란다.

김솔 기자, 심유진 기자



손재주 동아리

## 우리학교 안전 교육

우리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한 소화기 사용법 훈련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소화기 사용법 훈련은 1학년은 6월 25일 목요일 5교시에 하였고, 2학년은 23일 화요일 5교시, 3학년은 26일 금요일 2교시, 4학년은 25일 목요일 1교시, 5학년은 26일 금요일 1교

시, 6학년은 24일 수요일 1교시에 하였다. 각 학년 교실에서 나침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동영상 본 후 학년별 해당 날짜에 운동장에서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하였다.

1학년 류준무 학생은 재미 없었다고 했고, 1학년 심현진 학생은 조금만 하니까 재미없었다고 한다.

다음은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훈련을 하였다. 보건선생님께서 오셔서 시범을 보이고 담임선생님께서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주셨다. 1학년은 7월 2일 목요일 5교시에 했다. 2학년은 6월 30 화요일 5교시에 했고, 3학년은 7월 3일 금요일 2교시, 4학년은 7월 2일 목요일 1교시, 5학년은 7월 3일 금요일 2교시, 6학년은 6월 30일 수요일 1교시에 했다고 한다.

자동제세동기를 한 후 4학년 정유선 학생은 먼저 마네킹이 너무 이상했고 누를 때 느낌도 이상했지만 재미있었다고 한다.

계수초 1,2,3,4,5,6학년은 위기 때 모두 잘 대처할 것 같다.

소화기 훈련을 했다. 소화기를 쏘다. 소화기를 쏘 때 장난을 치는 친구들이 있었다. 다음에는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폐소생술을 했다. 인형으로 했다. 인형 이름이 써니, 앤 이었다. 한명은 앤에게 한명은 써니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했다. 인형에다 손을 올리고 눌렀다. 누를 때 힘이 들었다. 재미있었다.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박시연 기자, 심유진 기자



소화기 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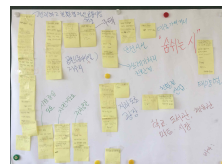
## 숨 쉬는 시

4학년 마을 만들기는 살고 싶은 마을에 대해 고민해보고 나눔과 따뜻함이 있고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진행 하였다. '작은집 이야기'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를 읽었고 체험학습으로 '보릿고개 마을' '참이슬 마을' 견학을 다녀왔다. 도시 응시를 통한 살고 싶은 도시 탐구했고, 촌락과 도시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공부했다. 도시 만들기는 숨쉬는 시 이름을 정했고 입체로 만들기로 했다. 경기도청에 들어가서 부서를 찾아본 후 숨 쉬는 시 지방정부도 우리가 만들었다. 선거를 통한 모의 시장, 부시장 선거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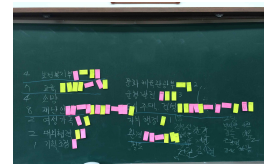
우리가 숨 쉬는 시를 만들었을 때 엄청 큰 빌딩, 숨 쉬는 타워 등등을 만들었다. 안가람 학생은 동물원을 만들고 숨 쉬는 시가 좋고 만든 것도 재미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도시를 만드니까 정말 이런 도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싶다.

박형주 기자, 조현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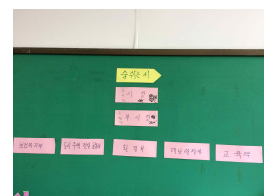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숨쉬는 시 정부 부서 조직



숨쉬는 시



숨쉬는 시 정부

## 각 학년 소식

### 유치원 소식

유치원은 과학실험 때 무당벌레 비행기를 만들고 도둑놀이를 했다고 한다. 색종이도 접고 요리활동도 하고 할머니 봉사선생님이 오셔서 마술쇼를 했다고 한다. 방과후 수업으로는 발레를 했다고 한다.



### 1학년 소식

1학년은 7월부터 날마다 글쓰기 공부를 했다고 한다. 1학기 마무리를 하면서 같이 배운 노래를 불러보고 연주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물총놀이도 1학기 마지막으로 했다고 한다.

### 2학년 소식

2학년 이레가 전학을 가게 되었다. 그러면 시온이도 전학을 갈까 궁금하다. 그리고 2학년이 다목적실에서 홀라후프 놀이를 재미있게 했다. 아마도 이레를 위한 것 같다.

### 3학년 소식

3학년은 키우고 있던 장수풍뎅이에 대한 소식이다. 올봄에 장수풍뎅이 암수 1쌍이 3학년 교실에 들어왔다. 그런데 장수풍뎅이 중에서 수컷이 7월 17일에 갑자기 죽었다. 그리고 이어서 암컷이 7월 23일에 갑자기 죽었지만 그래도 알 24개는 낳고 죽어서 다행이라고 한다. 알 24개 중에서 애벌레 2개가 태어났다. 애벌레가 잘 자라길 바라나다.

### 4학년 소식

4학년은 6월 19일에 단오행사로 단우부채를 만들고, 장명루를 만들었으며, 7월 생일 잔치 음식 만들기를 하고, 물총놀이를 하며 보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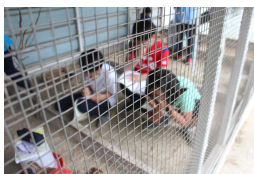
### 5학년 소식

5학년은 닭을 7월 14일에 내보냈는데 큰 닭들이 병아리를 괴롭혀서 병아리를 따로 모이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 6학년 소식

6학년은 글쓰기, 스케치, 연습을 했고 오징어 달구지 게임도 열심히 했다는 걸 알았다.

류덕무 기자, 송한결 기자



병아리 돌보기



글쓰기 수업



물총 놀이



단오 부채 만들기

## 병아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5,6학년이 키우고 있는 병아리들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궁금하여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5,6학년에게 병아리 관리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6학년 황능규 학생-이들에 한 번씩 밥이랑 물을 주고 있고 닭장에 가두고 똥은 치우지 않고 있어요.

-5학년 조인택 학생-잘하고 있고 물을 깨끗하게 갈아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병아리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5학년 김지유 학생-두 마리 다 건강한 상태

크기도 많이 크고 또 밥을 잘 먹고 있어요.

-5학년 정윤정 학생-두 마리 다 빠르고 완전 건강해요.

-5학년 고한솔 학생-두 마리 다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많이 컸어요.

다음으로 여름방학에 병아리를 어떻게 할 것 인지 인터뷰를 해 보겠습니다.

-6학년 황능규 학생-여름방학에는 5마리 중 3마리는 잡아먹고 2마리는 남긴다.

-5학년 김수현 학생-여름방학 전에 4마리를 팔고, 10마리는 방학에도 당번을 정해 돌본다

그리고 병아리가 어른 닭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5학년에게 인터뷰를 해 보겠습니다.

-5학년 여자 학생들-절대 잡아먹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유선 기자, 조백연 기자



## 방학과 개학 소식

2015년 7월 29일에 방학을 한다. 사실은 지난주 22일(수)에 방학 예정이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1주일을 쉬었다. 그래서 1주일이 연기됐다.

그래서 29일수요일에 방학을 하고, 27일~28일까지 도시락을 싸온다.

그리고 야영은 비가 와서 28일29일이 됐다. 야영은 나눔데이 팀으로 하게 된다.

개학은 8월 24일에 한다. 9시까지 숙제를 가지고 교실로 오고, 그날 급식을 한다.

안가람 기자

## 계수 솜씨 모음

유치원 작품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무지개 물고기



무지개 물고기

## 1학년 글쓰기

안지훈

날씨 : 옷이 달라 붙었다.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때 구령대에서 이지훈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지훈이 안와서 그냥 놀았다. 놀 때 그네를 타려고 했는데 호준이가 그네를 안 내렸다. 친구들이 그네를 안 내려서 기분이 안 좋았다.

심현진

날씨: 오늘 내 머리가 날라 갈 뻔 했다.

수요일에 언니 치과를 갔다. 치과를 다 끝나고 소갈비를 먹고 집에 가는 길이였다. 가면서 네모난 나무를 봤고 눈사람이 거꾸로 돼 있어서 신기했다.

정이스

날씨: 더운 줄 알고 안에 있었는데 나가봤더니 시원했다.

어제 샘이형아랑 준무랑 놀았다. 샘이형 공격하는 데 재미있었다. 클레이로 뽀족하게 만들어서 벽에다가 던지고 놀았다.

류준무

날씨 : 밖에 나갔다. 그네를 타려고 했다. 그네가 너무 뜨거웠다.

어제 형아 딱지를 갖다 줬다. 너무 힘들었다. 형아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다. 기분이 좋았다.

김민우

날씨: 가만히 있어도 더웠다.

학교에 오니까 조용했다. 학교에 가는데 더웠다. 부채가 있어서 다행이다. 학교에 일찍 와서 좋았다.

임경아

날씨 : 에어컨을 틀어도 더움

<태풍놀이>

오늘 태풍놀이를 했다.

태풍놀이에서 이지훈이 술래가 됐다. 땀을 흘리면서도 덜덜 떨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술래가 되었는데 내가 밖으로 나가서 다 못 잡았다. 아쉬웠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잘 들어야겠다.

김지민

날씨: 등에 땀 참. 차에서 내려 더웠는데 학교에 와서 시원했다.

이빨이 흔들렸는데 급식실에서 깍두기 먹다가 이빨이 더 흔들렸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빨을 빼주셨다. 그래서 감사했다.

백주희

학교에 갔다. 애들이 없었다. 신기했다. 그 중에서 제일 신기한 것은 류준무가 안 온 것이었다. 너무 신기했다.

조성우

날씨: 밖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시원했다.

어제 엄마가 콩국수를 해줬다. 아주 맛이 있었다. 너무 맛있어서 두 그릇을 먹었다. 아주 맛있어서 후루룩 후루룩 먹었다.

간하랑

날씨 : 엄청 땀이 주르륵 주르륵

<햇볕>

오늘 햇볕이라는 노래를 틀어줬다. 그 노래는 나도 아는 노래였다. 우리 동생도 안다. 그 노래는 여름에만 들어야 재밌다. 너무 재밌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몇 번째로 좋아하는 노래다. 그래서 너무 재밌다.

최준휘

날씨 : 그네만 탔는데 땀이 주룩주룩

<쉬는 시간>

성우랑 같이 그네를 타려고 달려 갔다. 그네를 번갈아 탔다. 그리고 내 차례인데 쉬는 시간이 끝나서 아쉬웠다. 다음에도 또 같이 탔으면 좋겠다.

원호준

<오랜만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친구들이 안아줬다. 친구들이 편지를 써주니까 기분이 좋았다.

이지훈

날씨 : 땀이 주루룩 주루룩 흘렀다.

<태풍놀이>

친구들이랑 태풍놀이를 하니까 재미있었다. 친구들이 나만 잡아서 힘들었다. 친구들이 쉽게 잡히는 줄 알았다. 친구들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다.

유솔

날씨 : 태풍놀이를 할 때 땀이 줄줄 흘렀다.

<태풍놀이>

오늘 태풍놀이를 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술래였다. 술래를 했는데 이지훈을 잡으려는데 이지훈이 너무 빨라서 못 잡아서 아쉬웠다. 다음엔 더 잘 해야겠다.

## 2학년 글쓰기

### 선우네 집에서...

김대현

선우네 집에 가기로 약속한 날  
빨리 가고 싶어  
그림 그릴 때 집중을 더 했다.  
문 앞에서 선우 엄마 차 기다리다  
두 번 속았다.  
차 안에서 영화 보며 선우네로 출발

학교 숙제 먼저 끝내고  
승우형 자라를 봤다.  
천천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빨랐다. 고 놈 신기하네.  
밖에서는 축구, 용암놀이  
놀이터가 떠나가라 소리지르며  
무현이 피해 다니고  
공 피하려고 꺾꺾 거리고  
농구 골대 올라가려고  
하지만 밑으로 주루룩

수민이 엄마부터 무현이 엄마까지  
우리는 집에 다 갔다.  
또 가고 싶다.

### 언니 친구들

김이레

“엄마, 언니 친구들 언제와요?”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갑자기 왁자지껄  
드디어 왔구나.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근데 언니들, 뭐 할 거야?”  
“우리 수영장 가자.”  
수영복 안에 입고 진실게임  
“너는 저 방에 가!”  
히히~ 나는 신나게 TV 볼 생각에.

드디어 수영장

수영 못하는 지원이 언니  
팔 돌리기 가르친 후  
물속에서 술래잡기, 웃긴 표정 짓기  
누가 더 멀리가나, 합동해서 물 쇼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는 처음이야.

### 시원한 수박화채

고수민

선생님이 들고 오신 크~은~ 수박  
칼로 반을 찌억~ 자르니  
사과 같은 빨간 속  
우유와 후르츠, 사이다를 넣었다  
우유는 넣지 말지...  
하민이가 국자로 힘차게 획획  
동그랗게 섞었다  
마지막에 얼음 넣고 먹은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화채  
집에서 꼭 또 먹을거다

### 피자 데이트

이재건

“엄마, 피자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안 돼..... 그~래.”  
사랑스러운 교회 옆 도미노 피자  
어떤 피자 먹을까?  
우리 가족이 정한 치즈 고구마 피자  
뛰면서 집으로 고고  
엄마, 아빠는 1조각, 나는 4조각  
맛있고 배부른데 음료수도 꿀꺽꿀꺽  
또 먹고 싶은 피자  
다음에도 엄마 졸라야지

### 맛있는 수박화채

유샘

선생님이 들고 오시는 커다란 수박  
깍둑썰기로 자른 후  
큰 그릇에 두두둑  
사이다, 우유, 방울토마토, 후르츠 넣을 때  
화채 먹을 생각밖에 안 났다  
음, 맛있게 보인다  
난 빨리 먹고 싶었지  
하지만 순서가 꼴등

저절로 침이 꼴딱 넘어 간다  
드디어 내 차례  
많이 퍼서 두 그릇 똑딱  
하지만 살찔까봐 걱정이 넘쳐난다

### 글감 찾기

박소현

글감 찾기 국어수업 시간  
교과서에 나온 일기를 읽고  
글감을 찾아봐요  
복도에 나타난 큰 별, 생일 파티  
글감 찾기 조금 어렵네  
  
4학년 언니들이 2학년 때 쓴 일기  
유진이 언니의 인형극 공연  
읽어보니 신기하네  
제목과 글감이 비슷해요  
아하! 글감과 제목은 비슷한 것이구나  
글감 찾기 어렵고 재미없다

### 선우네 집에서 논 일

전무현

두 번째로 가본 선우네 집  
집은 좁았지만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  
승우형이 보여 준 자라  
느릴 줄 알았는데 엄청 빨랐다.  
착착착~ 착착~  
  
저녁 먹고 놀이터로 출발  
용암놀이, 축구, 공 던지기  
대현이가 정글집에 올라갔을 때  
공을 던져 머리통을 맞췄다  
대현이는 비틀거렸고 나는 신이났다  
수민이 엄마가 오시면서  
아이들이 하나 둘 집으로 가고  
다음에는 잠을 자고 가고 싶다

### 친구들이랑

2학년 남선우

오늘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다  
친구들이랑 우리 집에서 놀기로 한 날  
처음엔 돈뺏기 놀이  
형이 술래. 방문 꼭대기에 돈 꽂아놓으면  
우린 뛰어서 돈을 뺏는 거다  
어, 팔이 안 달네. 야, 잠자리채로 뺏자!  
히히, 쑥 빠지네. 가슴이 펑 뚫렸다  
  
밖에 나가서 축구  
형이 뺏, 형만 많이 넣고 나는 영 꼴  
에이 재미없어  
용암에 빠지면 죽음  
난 안 빠져서 다행이었다  
무현이와 대현이는 빠졌다  
정말 신났다  
근데 친구들이 가니 아쉬웠다.

### 3학년 글쓰기

#### 다슬기

허다희

다슬기 뱅뱅 돌려져있는 다슬기  
바늘로 안에 있는 살을 빼도 뱅뱅  
미끌미끌 다슬기  
소라모양 다슬기  
맛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고민  
한번 먹어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다슬기  
오늘도 다슬기 먹을까 말까

#### 바람

백주영

바람은 시원해  
이 더운 날도 바람은 시원해  
추운 날에는 바람이 차거워  
가을에 바람이 불면



낙엽이 움직여  
봄에 바람이 불면  
꽃이 떨어져  
바람은 날씨나  
계절에 따라  
쓰임이 바뀌어

### 동시쓰기

최문석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지는 동시쓰기  
연필을 잡을 땐 생각이 안나고  
하기가 싫어지고  
쓰려고 할 때마다  
더욱 더 생각이 안나고  
너무너무 하기가 싫어지고

### 장수풍뎡이

3학년 김재겸

드디어 장수풍뎡이가 번데기에서 나왔네  
오늘 밥 갈아주고  
놀이목도 넣어주고  
학교갔다와 보면  
젤리가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나오지  
그러면 좋지

### 영어

이준철

무서워지는 영어  
가까워 질수록 겁이나  
부들부들 떨린 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머리가 지끈지끈  
영어를 읽을 때 머리가 텅 비어  
영어를 들을 때 머리가 차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영어가 끝날 때 난 기뻐  
그래도 영어는 날 도와 줘  
그래도 나를 멀리 가게 해줘

### 영어

3학년 이유

부들부들 떨리는 발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읽기가 귀찮고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 여름

이선린

너무 더운 여름  
짜증나는 여름

햇빛은 짹짹  
머리는 어질

하지만 논다  
그 땀별에서

물속에도 풍덩  
하드바도 꿀꺽

싫고 너무 덥지만  
놀고 또 논다 여름에

### 계곡

최주석

물이 졸졸졸  
참새소리는 짹짹  
사람이 뛰놀고 있다  
그 사이에

### 축구

정윤오

오늘은 축구하는 날  
우리가 이겼으면 하는 날  
내가 좋아하는 축구하는 날

## 4학년 글쓰기

### 요리하기

박시연

오늘 요리를 했다. 오늘 처음에 머핀을 만들었다. 다른 애들은 수박 화채를 만들었고, 우리는 머핀이랑, 바나나에 초코를 넣고 장식했다. 요리가 끝나고 생일 파티를 했다. 율이, 재현이, 덕무, 솔이 생일 파티를 했다. 재미있었다. 또 하고 싶다.

### 지우개 도장

이율

난 오늘 선생님과 같이 지우개 도장을 만들었다. 난 재미있어서 한번 더 하고 싶었는데 지우개가 1개뿐이어서 2개는 못하였다. 하지만 재미있었다.

### 달팽이

김솔

어제 달팽이 비도 안오는데 달팽이가 풀잎에서 꿈틀꿈틀 이슬 맺힌 풀잎에서 또 달팽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다른 달팽이와 사이좋게 기어다닌다.

### 생일파티

심유진

7/14일날 율, 재현, 솔, 덕무가 생일이였다. 요리를 해서 좋았다. 친구들이 마음을 담은 편지를 줘서 기뻐나보다. 근데 재현이가 때려서 아프긴 했다. 요리가 맛있어서 좋았다.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

### 지우개 판화

박지원

어제 지우개 판화를 했다. 먼저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시작을 했다. 먼저 종이에 지우개 모양대로 그린 다음 자기 이름을 쓴다. 그 다음 지우개를 그 위에 꼭 찍는다. 그럼 지우개에 이름이 거꾸로 세겨진다. 판화는 이름을 파는 것과 겉을 파는 것이 있다. 나는 이름을 파는 것을

하였다. 나는 도중에 계속 실패해서 지우개가 작아졌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도와주셔서 실패하지 않았다. 재미있었다.

### 지우개 도장

김시현

지우개 도장이 재미있었다. 지우개를 잘 자르고 다듬고 하였다. 중간에 엄지가 찔렸다. 아팠다. 지우개 도장을 만들고나니 뿌듯했다.

### 지우개 도장

정유선

나는 어제 지우개 도장을 만들었다. 지우개에다가 조각도로 잘라서 만들었다. 처음에 많이 어려워보이지 않았는데 하다보니 어려웠다. 그래도 도장을 직접 만들어봐서 재미있었다. 도장을 만들 때 구멍을 너무 작게 했는데 그래도 구멍을 더 크게 파서 찍어보았더니 잘 나와서 재미있었다.

### 생일파티

김시온

학교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 이번에도 요리를 했다. 우리 모듬은 까나페를 만들었다. 그리고 쿠키도 만들었는데 쿠키는 실패하고 까나페는 성공했다.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었다.

### 지우개 도장

류덕무

어제 지우개로 도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글씨 쓰는 건 쉬웠지만 조각도로 파는 건 어려웠다. 그래서 3면은 실패하고 3면은 성공했지만 그래도 많이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 지우개 도장

조현택

지우개 도장을 만들었다. 지우개에다 내 이름을 거꾸로 적어서 도장을 찍고 찍으면 내 이름이 똑바로 나온다. 그리고 지우개 도장이 너무 재미있었고 지우개 쓰레기로 시현이랑 놀았다. 지우개 쓰레기로 맞으면 겁나 아프다. 또 스탬프에 손도장을 찍었는데 잘 안지워졌다.

## 지우개 도장

안가람  
어제 지우개 도장을 만들었다. 나는 외숙모 생일이어서 이민정이라는 이름을 지우개 도장에 새겼다. 정말 재밌었다.

## 요리

송한결  
요리를 했다. 우리는 뭐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났다. 나는 ABC초콜릿을 녹였다. 그래서 바나나에 묻혀서 먹었다. 맛있었다. 제일 맛있는 것은 현택이네가 만든 화채가 1위, 우리가 만든 머핀, 초코 바나나가 2위, 3등은 지원이네가 만든 까나페다. 다 맛있었다. 그래서 점심을 안먹었다.

## 집에서 있었던 일

조백연  
어제 체육창고에 박아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매우 아팠고 한결이한테 사과도 안받으니 더 짜증이 났다. 그리고 학교에 오기도 힘들었다.

## 지우개 판화

이재현  
지우개 판화를 했다. 연필로 지우개에 이름이나 그림을 그리고 조각칼이나 커터 칼로 파내는 거였다. 재미있었다.

## 5학년 글쓰기

## 내성천과 영주댐에 대한 의견

고한솔  
나는 내성천이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다. 지금도 댐 건설 때문에 내성천같은 강이 사라지고 있는데 남아있는 내성천이라도 남아있으면 좋겠다. 내성천에는 멸종 위기종이 많이 살고 있는데 댐을 건설하면 멸종 위기 동물도 사라지고 자연이 사라지고 있어서, 나는 내성천에 댐 건설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정훈

저는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을 수력 발전, 홍수를 막는 것, 모래를 여러 데에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마을이 물에 잠기고 세계에서 흔하지 않은 강을 없애지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불이익을 만드는 건 이상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나중에 댐을 건설했다는 것에 분명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게 될 것이다.

김지유

그냥 슬프다. 이러한 댐이 만들어지면 얻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게 많은 것 같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강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더욱 보존해야지 왜 부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댐 건설 회사가 밉다.

박준영

반대, 찬성 중 반대합니다. 이유는 내성천 강이 너무 예쁘고 동물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 피해가 많이 갑니다. 댐을 건설하는 것은 괜찮은 생각같지만 영상에서 본 것에서 피해가 많으니까 반대합니다.

우다현

댐 건설 때문에 내성천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다. 댐이 건설되면 고운 모래를 발로 밟을 수도 없게 되고 맑은 물도 거의 볼 수 없게 되는 아쉽다. 그냥 댐 건설을 안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불편한 점이 생긴다고 하나의 자연을 없애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성천이 안 없어지면 좋겠다. 댐을 만드는 것은 자기 욕심인 것 같다.

정윤정

나는 영주다목적댐이 세워지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다시는 아름다운 내성천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위에 여러 마을이 잠긴다고 하기 때문이고 지금도 여러 곳이 파괴된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멸종위기인 흰수마자, 수달 등 여러 동물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만드는 댐이 이미 여러 곳을 파괴시키고 있다. 하루 빨리 영주댐을 세운다는 계획이 취소되었으면 좋겠다.

조인택  
나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모두 파괴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옛날부터 사셨는데 떠나면 아쉬울 것 같다. 그리고 내성천에서 사는 동식물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하니 너무 짜증난다. 제발 영주댐 사업을 그만 두면 좋겠다.

김진섭  
만들어지면 전기가 나오고 홍수를 막지만 자연이 파괴되면 우리에게 피해가 엄청나게 올 수 있고 역사를 없애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고향이고 아무것도 아니 사람도 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이 없어지면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김상지  
사람들이 편하고 홍수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댐을 만드는 게 좋지만, 마을 사람들이 댐을 만드는 게 좋지, 마을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하고 마을도 잠기기 때문에 댐을 안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내성천은 드문 강이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습지들을 없애는 거라 공사가 좋은 것 같지는 않다.

홍다희  
나는 슬프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모래강이 고향이기도 또 누군가에게는 모래강이 고향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모래강이 놀이터이기도 해서 그런 것이다.

김승현  
나도 반대한다. 왜냐하면 마을이 물에 잠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떠나야 하고, 고향이 침수하니 원주민의 피해가 있기 때문이다.

내성천은 아름다운 곳이고, 그 곳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댐을 지으면 내성천과 동물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영주다목적댐 건설에 반대한다.

김수현  
나는 반대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도 충분히 잘 살 수가 있는데 댐을 건설하면 마을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습지, 그곳에 하는 생태계가 파괴된다. 오직 수력 발전소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위해 이렇게 파괴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남승우  
댐을 만들면 마을이 잠기고 내성천에 사는 동식물들이 죽으니까 댐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도시로 가면 돈이 부족해서 힘들어질 수도 있다. 농사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댐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 6학년 글쓰기

### 관찰글쓰기

#### 살구

안소은  
모양새는 조그마한 복숭아다. 주황색 복숭아. 맛은 역시나 맛있다. 천도복숭아와 그냥 복숭아를 섞어 놓은 맛이다. 씨는 크다. 검정, 갈색이다. 향은 잘 나지 않는다.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살구색이어서 살구가 아닐까 싶다. 또 다시 먹고 싶은 맛!! 근데 차라리 이것보단 천도복숭아나 그냥 복숭아가 나은 듯하다. 이유는 섞어 놓은 맛이라곤 했지만 조금 밋밋하였기 때문이다. 아! 참고로 난 1개 반을 먹었다.

#### 살구

온승민  
살구의 겉은 털이 있는 것 같다. 향은 못 맡았다. 색깔은 노란색과 주황색이다. 안에 큰 씨가 있고 굴과 복숭아 중간 맛이다. 겉 촉감이 부드럽다. 즙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못 봤다. 내가 생각한 것 보다 덜 달았다.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다. 나중에 한 번 더 먹어 봐야겠다. 맛은 맛있었다.

#### 살구

김수겸  
살구는 살구색. 살구색은 연한 주황색. 만지면 부드럽고 흔들면 씨가 흔들린다. 깨물면 느낌이 이상하다. 그리고 먹으면 복숭아 맛이 느껴지고 시다. 하지만 복숭아 보다 덜 달다. 진한 맛은 느껴지지 않지만 부드럽다.



## 살구

김겨레

오늘 선생님이 살구를 주셨다. 모양은 작은 복숭아 같고, 색은 주황색. 씨는 주황색이다. 맛은 그냥 조금 덜 단 복숭아 맛이다. 꽤 맛있었다. 부드러웠다. 처음에 봤을 땐 맛있어 보였다. 먹어봐도 맛있었다. 처음 맛은 뭔가 이상했는데 중간 맛은 조금 달고 끝 맛은 신 맛이 약간 있었다. 맛있긴 한데 굳이 돈 주고 사먹고 싶은 맛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준다면 거절하지 않고 먹을 것이다. 나는 과일 중에 복숭아를 가장 좋아한다. 근데 살구가 복숭아랑 맛이 비슷해서 좋았다.

## 주제글쓰기

### 공부

노수정

공부를 싫어한다. 공부는 재미없고 머리 아프고 따분하고 잠이 온다. 그래서 난 공부가 싫다. 하지만 난 공부가 다 싫지는 않다. 생각해 보니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내가 잘 하는 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과목은 내가 못해서 싫어하는 것 같다. 이제부터 싫어하는 과목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재미있게 해야겠다.

## 키

6학년 노진영

나의 키는 현재 157.3cm 이다. 키가 크면 좋은 점이 많다. 키가 크면 높게 있는 물건들을 꺼낼 수 있지만 키가 작은 사람은 높게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없다. 어딜 가든 나는 키가 크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놀이동산을 간다면 키가 작으면 자신이 타고 싶은 놀이기구도 타지 못하기 때문에 키가 커야 좋다.

## 바람

백주은

따뜻한 바람. 차가운 바람. 시원한 바람. 등등에 바람이 있다. 오늘 교실에 들어갔더니 시원한 바람이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 기분 좋은 바람 여름 내내 이런 바람만 불면 좋을 것 같은데 수업을 시작하니 바람이 멈추었다. 시원한 바람은 이제 불지 않는

다. 이제선풍기 바람이 분다. 하지만 선풍기 바람은 시원한 바람 발 끝에도 못 쫓아가지 시원한 바람 언제 다시 불까? 따뜻한 바람. 차가운 바람. 시원한 바람.

## 너에게 나란?

황능규

우리반 남자애들에겐 나는 정말 재밌고 웃긴 말을 많이 하는 친구일 것 같다. 학원선생님들과 학원친구들은 나를 조용하고 모범적인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엄마께서는 나를 공부를 잘 하는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 여름 방학 안전을 위해 알아둘 것



### 물놀이 10대 안전 수칙

1.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 및 **(구명 조끼)** 착용
2.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 **팔** → **얼굴** → **가슴**)
3.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휴식)**
4.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
5.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 NO!
6. 수영 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 NO!
7. 장시간 수영 NO!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 NO!
8.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9. 구조 경험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NO!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NO!
10.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 구조